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6

김요셉 목사님

서론

교회에서는 예배하자, 기도하자, 다락방하자,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한다.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실이 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뭘 저런 것을 다 하나 싶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기도, 전도가 다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서밋이라는 말이 정상 아닌가. 영적으로 최고 높은 단계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면 왜 계속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가? 어떤 사람은 예배시간에 특강을 하자고 하던데,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왜 교회에서는 영적인 비밀을 자꾸 이야기해주어야 하는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은 다스릴 육신적인 축복 전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주셨다(창1:27).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창1:28). 무엇이 먼저인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에 올라가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란다. 교회에 와서 영적인 힘을 얻어라. 육신의 질병을 두고도 마찬가지다.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

(2)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다(창3:1-5). 그러니까 전부 육신 중심이 된 것이다(창3:6). 언약 대상에 육신적인 것만 보 이게 되었다. 청년들이 장가를 갈 때 자꾸 여기에 흔들린다.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전부 육신 중심으로 간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도 종교생활을 한다. 이 구분을 해야 한다. "일어나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램넛트가 하는데,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3) 영적인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 육신적인 축복을 받지 말라는 것인가? 요6:63,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다.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하라는 말이다. 마6:33에, 먼저 그리스도를 주라고 외치라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이야기하라, 그것으로 주인 삼아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다. 철저하게 영적인 것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잘못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럴 수 있다. 내 눈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완벽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이다.

(4)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누리도록만 들어라. 공부, 사업, 안 되면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야 한다. 우리

는 자꾸 반대로 육적인 것 회복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한다. 그게 종교생활이다. 잘 되면 헌신하겠다 하는 것은 로또 당첨되면 헌금하겠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예배 안에서 사업도 지식도 회복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답이 된다. 이게 안 되면 하나의 형식이 된다.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하는 사람은 빨리 기준을 바꿔라.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예배, 공예배는 목숨같이 지켜야 한다. 예배 회복, 인생 성공이다. 이게 방법 중의 방법이다. 영적인 존재는 예배 중심이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모든 스케줄이 예배 중심이다. 시스템을 놓치지 마라. 방법이 예배다. 우리끼리 같이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원의 길이다.

1. 원래 인간

원래의 인간은 창1:27-28, 복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다.

2. 문제가 생김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근본 문제다. 하나님 떠나고 죄를 범했다. 신분이 마귀 자녀로 변해 버렸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가장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다. 사람을 알 때 많이 알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불신자다. (웃음) 세부적으로 진단한다 하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에 어디 빠져 있는가만 보면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불신자다. 예수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전도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나? 그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된다. 죽음이 오게 된다. 불신자 상태, 열두 가지 영적 문제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 현장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대물림이다. 끊을 수가 없다. 이유도 방법도 모른다. 계속 지속된다.

3. 죽음, 심판, 지옥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 뒤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게 되었다(히9:27). 여러분은 어디에 있게 되겠는가? 나는 천국을 확신한다. 잘 나서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한다. 램넛트들이 이렇게 들어도 컨디션 따라서 헛갈린다. 아는 게 아는 게 아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복음 듣고 힘을 얻어라.

4. 인간의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방법이 많이 있다.

(1) 그 중에서도 종교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겠다고 생각한

다.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음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은 종교생활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 복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의 시험이다. 자기 행위에 대한 낙심이다.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복음이 아니다.

(2) 철학과 지식은 무엇인가? 초등학교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일심 별로 안 한다. 철학은 복음의 기준이 아니다.

(3) 선행이다. 내 일생을 드러도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자기 의, 자기만족일 뿐이다. 마11:4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복음이어야 한다.

5.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죄인에게 무슨 조건이 있겠는가. 아무 것도 없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1)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요14:6).

(2)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롬5:8).

(3) 지금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간질하는 이 마귀의 존재를 유일하게 이기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요일3:8).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마16:16).

6. 구원의 방법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1) 한 번만 제대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요1:12).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완벽하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5:17). 육신적인 것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그것이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축복이다.

(2) 영접을 어떻게 하는가? 롬10:9-10. 말하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다. 영접하는 것도,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

(3) 언제 구원받아야 하는가? 지금이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다.

7. 확신

영접한 사람이 가져야 할 확신이 있다.

(1) 구원의 확신이다.

(2) 성령 내주의 확신이다(고전3:16).

(3) 기도응답의 확신이다.

(4) 흑암 결박이다.

(5) 승리의 확신이다. 이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 되는 게 승리가 아니다. 공부 1등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 승리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만 본다. 기준이 그렇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는 '함께'다. 이것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결론 : 재창조

(1)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재창조다. 고후5:17,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2) 현장이 재창조되는 것이다. 현장의 재창조다. 행13, 16, 19 장이다. 우상이 잡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가 바뀌는 것이다. 복음의 문화와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것이 현장 제자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다.

(3) 문화 재창조다. 역사가 일어난다. 예배 문화다. 기도 문화다. 디락방 문화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것이 문화 재창조다.

이해를 잘 해야 한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다. 이런 재창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 있게 되기를 축원한다.